

웅진케미칼, 탄소섬유 사업 도전장

2011년 4/4분기 구미공장 상업가동 ... 아라미드섬유와 함께 집중육성

웅진케미칼이 고강도·고탄성 섬유인 탄소섬유(Carbon Fiber)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웅진케미칼은 구미공장에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신설해 2011년 4/4분기부터 상업가동할 계획이라고 2월24일 발표했다.

웅진케미칼 관계자는 “탄소섬유 시장은 연평균 11% 확대가 예상되는 고부가 시장”이라며 “2012년 71억원, 2013년 470억원, 2014년 883억원으로 매출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소섬유는 아크릴(Acryl) 섬유나 석유에서 추출한 피치(Pitch) 등을 특수 열처리한 섬유상의 탄소물질이다. 무게는 알루미늄 대비 4분의 1로 가볍지만 강도는 철의 10배나 강해 자동차, 항공기, 로봇, 풍력발전기, 기계 등 산업분야는 물론 테니스 라켓, 낚싯대, 골프채 등 스포츠 레저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박광업 웅진케미칼 사장은 “2010년에는 탄소섬유와 함께 기술집약적 첨단 슈퍼섬유로 각광받고 있는 메타게 아라미드섬유(Meta-Aramid) 사업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신소재 유망사업을 통해 2012년 매출 1조1658억원, 영업이익 1164억원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24>